논어 5편 공야장 19장 · 원문·풀이

子張問曰：「令尹子文，三仕爲令尹，無喜色；三已之，無慍色。舊令尹之政，必以告新令尹。何如？」子曰：「忠矣。」曰：「仁矣乎？」曰：「未知，焉得仁？」「崔子弑齊君，陳文子有馬十乘，棄而違之，至於他邦，則曰：『猶吾大夫崔子也！』違之，之一邦，則又曰：『猶吾大夫崔子也！』違之。何如？」子曰：「淸矣。」曰：「仁矣乎？」曰：「未知，焉得仁？」

독음 · 자장문왈 령윤자문 삼사위령윤 무희색 삼이지 무온색 구령윤지정 필이고신령윤 하여 자왈 충의 왈 인의호 왈 미지 언득인 최자시제군 진문자유마십승 기이위지 지어타방 즉왈 유오대부최자야 위지 지일방 즉우왈 유오대부최자야 위지 하여 자왈 청의 왈 인의호 왈 미지 언득인

쉬운 풀이(요약) · 벼슬에 오르내려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후임에게 인계한 자문은 충성스럽고,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시해하자 재산을 버리고 떠났고, 다른 나라에서도 최자 같은 대부를 피해 떠난 진문자는 깨끗하다.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인을 갖췄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張 베풀 장 장 / 問 물을 문 문 / 曰 가로 왈

令 명령 령 령 / 尹 다스릴 윤 윤 / 文 무늬 문 문 / 三 석 삼 삼

仕 벼슬할 사 사 / 爲 할 위 / 無 없을 무 무 / 喜 기뻐할 희 희

色 빛 색 색 / 已 이미 이 이 / 之 갈 지 / 慍 성낼 온

舊 옛 구 구 / 政 정사 정 정 / 必 반드시 필 필 / 以 써 이 이

告 알릴 고 / 新 새 신 신 / 何 어찌 하 하 / 如 같을 여 여

忠 충성 충 충 / 矣 어조사 의 / 仁 어질 인 인 / 乎 어조사 호

未 아닐 미 미 / 知 알 지 / 焉 어찌 언 언 / 得 얻을 득 득

崔 산 우뚝할 최 최 / 弑 윗사람죽일 시 / 齊 가지런할 제 제 / 君 임금 군

陳 늘어놓을 진 진 / 有 있을 유 / 馬 말 마 마 / 十 열 십 십

乘 오를 승 승 / 棄 버릴 기 기 / 而 말이을 이 / 違 어길 위 위

至 이를 지 지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他 다를 타 타 / 邦 나라 방 방

則 곧 즉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吾 자기 오 오 / 大 클 대 대

夫 지아비 부 부 / 也 어조사 야 / 一 한 일 일 / 又 또 우 우

淸 맑을 청 청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